

멕시코 또 강진 최소 216명 사망...초등학교 붕괴

〈규모 7.1〉

7일 지진보다 수도에 더 근접 학생 등 25명 사망·38명 매몰



19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초등학교 건물이 무너져 학생 21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숨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비에르 트레비노 멕시코 교육부 차관은 이날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시티에 있는 엔리케 레브사넨 초등학교가 무너져 학생 21명, 성인 4명 등 총 25명이 숨졌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4층짜리 학교 건물에는 30명의 학생과 8명의 성인이 갇혀 있어 필사의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고 소식을 접한 엔리케 페나 나에도 멕시코 대통령은 피해 학교를 방문, 자녀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학부모들을 만나 위로했다.

멕시코 민방위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 수를 최소 216명으로 추산했다. 한때 248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가 다소 줄었다. 매몰자가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 15분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23km 떨어진 푸에블라 주 라보소 인근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51km다. 불과 12일 전 일어난 지진 피해를 채 수습하기도 전 또다시 일어난 이번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 1985년 1



겁에 질린 소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23km 떨어진 푸에블라 주 라보소 인근에서 19일(현지시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멕시코시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혼잡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만여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지진 이후 가장 큰 피해 규모다. 지난 7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98명이다. 이번 지진은 지진 규모 면에선 멕시코 사상 최대 규모 강진이었던 지난 7일(규모 8.1)보다 낮지만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사상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 발생한 지진은 멕시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했다. 정부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고층 건물이 상당수 붕괴됐다는 점에서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전의 지진 피해 기억이 가시기도 전 다시 지진이 발생하면서 멕시코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다. 공교롭게 1985년 멕시코 대지진이 발생한 지 3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강진으로 땅이 흔들리자 수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대혼란을 빚었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에 도사가 갈라지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도심 곳곳에선 건물이 흔들리며 남긴 채 사라졌으며 지진 여파로 가스 배관이 파손되고 곳곳에선 화재가 발생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지진을 반복 경험한 시민들은 재빨리 안정을 찾고 속속 구조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눈앞에서 건물이 무너져 남긴 채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한 한 26세 여성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뒤 곧바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건물 잔해 주변에선 시민들이 삽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도구를 갖고 매몰자 구조 작업에 손을 보려는 장면이 목격됐다.

라레도 거리의 8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진 자리에는 100여명이 모여들어 일일이 손으로 시멘트 조각과 철근 구조물을 옮기며 구조작업을 벌였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도 실종된 가족을 찾으려는 글이 쏟아져 올라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진 발생 후 트위터에

“멕시코시티 주민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며 항상 함께 할 것”이라며 위로의 글을 올렸다. 멕시코 시티에는 교민과 주재원 등 한인도 많이 거주해 한인 피해 우려가 있었으나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아직 인명 피해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일본, 인도네시아, 칠레 등과 마찬가지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계속되는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한다. ‘불의 고리’에선 전세계 지진의 80~90%가 발생한다. 이번 지진과 지난 7일 밤 일어난 지진의 진앙은 서로 643km 가량 떨어져있지만, 똑같이 코코스 판이 북아메리카 판 아래로 깔려들어가는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USGS는 밝혔다.

지난 7일 밤에는 멕시코 차파라스 주 피히야판에서 남서쪽으로 87km 떨어진 해상에선 규모 8.1의 강진이 일어나 최소 98명이 숨지고 23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 “현대판 노예 4000만명...71%는 여성”

어린이 노예도 1000만명

전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4000만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현대판 노예 가운데 25%인 1000만명 정도는 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예에 시달리는 5세부터 17세 어린이

들은 전 세계적으로 1억5200만명에 달한다는 것도 제시됐다. 이는 전 세계 어린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국제노동기구(ILO)와 현대판 노예 종식을 목표로 설립된 ‘워크 프리 재단’(Walk Free Foundation)이 국제이주기구(IOM)와 협력해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외신들이 19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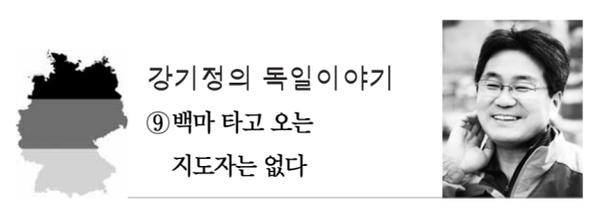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이 조사 결과는 유엔총회 기간 배포됐다. 이들 현대판 노예 가운데 71%인 2900만명은 여성과 소녀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가운데 99%는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 노동하거나 ‘강제결혼’(forced marriage)에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현대판 노예 가운데 2500만명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1500만명은 강제결혼에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들 가운데 70.9%는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17.1%는 서비스 분야에서, 11.9%는 공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런 재앙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모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기정의 독일이야기

⑨ 백마 타고 오는 지도자는 없다

매일 아침 30여분 걸어서 베를린 자유대학교로 가는 길은 정말 호젓하고 좋았는데 그 길이 공사를 하면서 수개월 동안 통행이 참으로 불편했다. 큰 공사도 아닌데 왜 이리 오래 걸리지? 우리라면 이틀이면 끝날텐데? 주민들의 항의는 없을까? 절로 궁금했다. 놀라운 것은 독일 주민들의 반응, 누구 하나 불만도, 문제 제기도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유가 있으니 그럴 것이라는 행정에 대한 절대적 신뢰 때문이다. 뉴른베르크에서 만난 정치학자 운비 교수의 말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훈련된 시민의식이 빛은 모습이라 한다.

“나치를 경험한 후, 국가의 불합리를 성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만 연간 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직장에서 유급휴가

당 당원으로 활동했고, 슈뢰더 총리 역시 18세에 시민당 당원으로 시작해 정치계 훈련을 거듭했다. 메르켈 총리도 17세에 자유독일청년단 회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오래 지켜보고 선택한 만큼 예측 가능한 리더십을 지닌 정치인들이 독일 정치를 이끈다. 그래서 정쟁이나 유불리에 의한 정치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대의를 위해 협력하는 성숙한 정치가 가능한 것이다.

2013년, 필자는 정당 정책연구소의 전문성과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인사와 재정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의 목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였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공부하고 혁명하는 사회, 전문 정치인이 책임정치를 해나가는 사회를 꿈꾸는 필자에게 독일의 시민교

공부하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만들어

로 인정해줍니다.”

한스자이젤 재단의 빌리 랑에씨의 설명이었다. 한스자이젤 재단은 기독교사회당 소속 재단이다. 기독교민주당의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등 정당마다 재단이 있고, 모두 연방의회 의안을 지원받아 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너무나 비속하고, 건장한 독일의 정책 인프라가 가능한 이유였다.

개인 정치인 재단도 마찬가지다. 빌리브란트 재단 볼프람 호엔 사무총장은 “아데나워 재단, 에버트 재단, 호이스트 재단, 슈미트 재단, 비스마르크 재단 등 정당 재단들도 모두 연방위원회의 예산을 받아 시민교육을 한다.”고 말한다. 연방정치교육원, 주정치교육원, 노조,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까지 합하면 독일은 한마디로 ‘공부없이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사회’다.

정당들은 정치인을 길러내는 역할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백마를 타고 온 정치스타는 없다.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철학과 소신, 정치력으로 선택을 받는다. 빌리 브란트 총리는 17세에 시민당에 입당, 서베를린 시장과 외무장관, 시민당 총재를 지낸 후에야 독일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헬무트 슈미트 5대 총리도 28세에 시민당에 입당, 당 원내총무와 장관을 지내고 독일정치를 이끌었다. 콜 총리도 18세부터 기민

육과 정치인 양성은 참으로 의미 있는 모델이었다. 그래서 독일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우리 지역 광주에, 좋은 정책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정책 싱크탱크를 만드는 일이었다. 제대로 된 싱크탱크 하나만 있어도 한 지역의 정치가 바뀌고,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의 즉각적 요구는 대통령 탄핵이었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했다. 교육과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정리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생각해보면 민주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또한 민주시민은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다. 좋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도, 그 정치를 성숙하게 하는 시민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사회, 민주인권도시 광주가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강기정의 독일이야기>는 정치인 강기정이 베를린자유대학교에 방문 학자로 머물며 기록한 독일의 industry4.0, 에너지, 경제, 정치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안 숙박시설(모텔) 매매·임대

2개동 (룸 총 46개) 즉시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2,0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매매가 9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직매 010-7384-7800

영광 주택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개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

010-6670-9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 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 2) 동구 금남로 총창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
- 3)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광주대 3분거리, 월수익 5백 이상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4) 남구 진월동 (5층 상가건물)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 5) 북구 신안동 (무인텔)
감정가 51억 - 최저가 36억
- 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 7) 북구 중흥동 (3층 상가건물)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9억6천

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 토지, NPL 전문

경매교육

매주월요일 개강 → 기초부터 실전까지
프리직원(파트너) 모집
062-382-5500